



전북을 풍요로운 지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충실하게 엮어 가는 과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생활 신조다. 경제학자이자 경제 행정가로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지사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군부 독재에 맞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실정책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되면서이다.

그래서 유지사는 도민과 함께 해 온 지난 5년여 동안, 도민의 소득 수준을 전국 상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라북도를 문화·환경·복지·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앞서가는 풍요로운 지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최선을 다해 왔다. 도민과 하나된 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겠다는 유지사의 확신과 자신감에 찬 모습에서 발전된 전북의 모습이 느껴져 왔다.

▶ 새 천년을 맞이하여 21세기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계신 사업 현황과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국토 발전 축 가운데 환 황해권과 남부 내륙 축이 교차하는 전주·군산·익산시를 서해안 신산업 지대망의 중추 지역으로 발전시키고, ◇ 새만금 복합 단지 개발 ◇ 전주 영상산업 수도화 지정 ◇ 니트 산업의 메카화 추진과 함께, ◇ 새만금 신항만 ◇ 김제 공항 건설 ◇ 군산~포항, 새만금~광양간 고속도로 및 동서 횡단 철도 등 SOC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환경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이와 같은 지역 발전을 기반으로 도민의 소득 수준이 전국 상위권으로 향상되고 문화 환경 복지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삶의 질이 앞서가는 가장 풍요로운 지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도정 최고의 목표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라북도는 민선 도정 5년 동안에 착실하게 구축한 발전 기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로 뻗어 가는 전라북도」를 실현하기 위해 도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예절을 지키고 공동체의 미덕을 살려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2기 후반기 도정은,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지금까지 다져 온 기반을 토대로 새만금·전주권 공항 건설 등 현안을 비롯하여 계획한 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새만금 친환경경계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

▶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십니까?

새 천년은 개인의 가치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중시되는 시대로서 누구나 그 권리를 가지며 사회 소외 계층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고루 잘사는 복지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층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 계층의 복지 시책 강화, 21세기 여성의 역할 강화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표 달성과 다른 시·도와 차별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은 시책을 개발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 복지시설 체험 봉사』입니다. 시설 체험 봉사는 전직원이 수용 시설 등에서 1회 이상씩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의 선행 덕목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설 생활인, 가족, 종사자, 자원 봉사자, 이웃 등이 참가하여 레크레이션, 운동경기 등을 실시하는 『신명이 축제』를 개최하여 시설 생활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학원의 결연을 추진해 학생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학원에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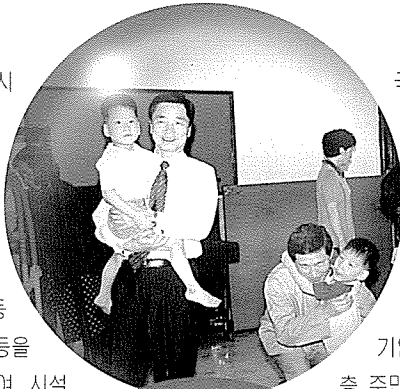
한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도 휠체어를 활용하여 공원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공 공원 내 노인을 위한 휠체어를 4개소에 20대를 비치하여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새 천년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충실한 시행 ◇사회 복지시설의 보호 수준의 강화로 사회 적응력 배양 ◇장애인 지원 확충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기반 확충과 미래를 바라보는 건전한 아동의 육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 평소 도민 건강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저소득층 주민 암 검진을 몇 년째 실시해 오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도민 건강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체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예방적 건강 증진 시책을 정착시키고 만성 퇴행성 질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 ▲▲▲ 군산 모세스 영아원을 찾아 원생들을 보살피며 체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유종근 지사
- ▲▲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 ▲ 전주시 호성동 소재 '전주 사랑의 집'을 찾아 체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유종근 지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물론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가 암 관리 체계 확립 및 주요 성인병 환자의 등록 관리 사업 계획 등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민선1기인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암 검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사각 지대인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 2만4천여 명에 대한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50여명의 암환자와 양성 중앙 환자를 조기 치료에 임하도록 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2차 5개년 도민 건강 증진 사업 개시 년도로서 추진 사업명을 '새 천년 도민 건강 검진'이라고 정하고 저소득층 주민 등 6천명에 대하여 간암·췌장암 등을 비롯한 만성 퇴행성 질환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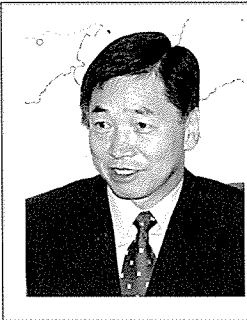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는 새 천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을 인간 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인간답게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경제학자이자 경제 행정가였던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전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제 꿈은 알프레드 마살과 같은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죠.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어 내 나라를 잘살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가슴에 싹터 오른 이래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경제학 박사가 되어 교수가 되고 그 후 주지사 경제 자문으로 일하면서 줄곧 키워 온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가 되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리라



- ◎ 전라북도 정읍 출생 (1944)
- ◎ 정읍중·익산 남성고 (1956~1962)
-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1962~1966)
- ◎ 미국 뉴욕 주립대 경제학 박사 (1970~1973)
- ◎ 러시아 국립외교대학원 명예 국제정치학 박사 (1996), 군산대 명예 행정학 박사 (1999)
- ◎ 뉴저지 주지사 수석 경제 자문관 (1978~1990)
- ◎ 평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 정책·기획 담당 특보 (1987)
- ◎ 재미 한국인권문제연구소장 (1988~1989)
- ◎ 뉴저지 주립 러거스 대학교 연구교수 (정 교수급, 1990~1994)
- ◎ 아시아 태평양 재단 비상임연구원 (1994)
- ◎ 아시아 태평양 재단 사무부총장 (1994~1995)
- ◎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 (1997~1998)
- ◎ 김대중 대통령 경제 고문 (1998)
- ◎ 제 29대, 30대 전라북도지사 (1995~현재)

던 저는 어느새 민주화 운동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에 신음하는 조국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연스럽게 관심의 폭은 순수 경제학에서 현실 정책의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경제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 오신 소신이나 좌우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생활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과정이 충실하다면 비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수용하는 편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정도를 걷는 태도를 견지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생활 신조와 좌우명을 바탕으로 평소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자 신의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건강을 위해 평소에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학창시절 즐겨 했던 각종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 덕분에 체력 유지에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사라는 자리가 운동할 시간을 따로 할애할만큼 여유롭지가 못해서 때문에 별도의 운동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면 팔굽혀펴기 60회는 거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최대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매사를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삶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

한 다양한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방청에 따라 건협이 도민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그 동안 저소득층 도민 건강 진단 사업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이동 민원 봉사에도 참여하여 큰 역할을 맡아 주고 있으며, 시설 수용자 무료 건강 검진과 도민들을 위한 보건 계몽 공개강좌 개설·보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역학적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이렇게 공익적 차원에서 도민 건강을 위하여 참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 전북도지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도의 생산적 복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 전라북도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친절·질서·청결·선행을 기본 덕목으로 하는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범도민 의식 운동으로 뿌리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나라에 물결 칠 수 있도록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전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